

1990년대 이후 액티브 스포츠웨어의 트렌드 분석

엄준희, 김민자*

지오다노, *서울대학교 의류학과

1. 서론

인간은 과거에서부터 생존을 위해 본능적으로 뛰고 싸우고 사냥해왔다. 현대 사회에서는 이러한 행동의 표출이 스포츠를 통해서 이루어지며, 또한 여러 가지 사회문화적 동기에서 스포츠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스포츠는 19세기말 산업 사회를 거치면서 급속도로 발달하였는데 이러한 스포츠의 발달과 함께 스포츠웨어의 개념도 생겨났다. 점차 스포츠가 발달함과 동시에 스포츠웨어 역시 근대적인 형태를 가지기 시작했고, 스포츠웨어의 기능적인 특성으로 인하여 여성의 의복 개혁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스포츠웨어 중에서 특히 액티브 스포츠웨어는 그 의 기능상 심미성은 다소 경시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올림픽이나 월드컵 등 스포츠가 세계적으로 사회문화에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는 요소가 되면서 스포츠웨어 역시 패션 이미지나 트렌드에까지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스포츠 웨어 역시 패션트렌드를 이루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스포츠웨어의 패션트렌드를 파악하는 것은 현대 패션을 이해하는데 있어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스포츠웨어 중에서도 특히 액티브 스포츠웨어의 변화 과정과 그 배경을 사회문화적인 측면에서 살펴보고 1990년대 이후의 액티브 스포츠웨어의 패션트렌드 변화를 구체적으로

살펴봄으로써 미래의 스포츠웨어디자인에 기초적인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를 제시하여 본다.

첫째, 스포츠웨어의 개념을 살펴보고 유래와 발생 요인, 형식, 특징 등을 고찰하여 그 역사적 흐름을 파악한다.

둘째, 19세기 이후 스포츠가 부상되는 사회문화적 요인을 살펴본다.

셋째, 1990년대 이후 액티브 스포츠웨어의 패션 트렌드를 바탕으로 조형적인 특징을 파악하여 본다.

연구에 사용한 문헌자료로는 복식사 문헌과 패션 산업관련 잡지 및 보고서와 스포츠관련서적, 스포츠 웨어 전문잡지, 스포츠잡지, 패션잡지를 사용하였다.

연구범위는 스포츠웨어가 부각되어 자체적인 패션트렌드를 형성했다고 판단되어지는 1990년대 이후 최근의 10년 간으로 제한하였고 골프복, 수영복, 스키와 스노우보드복, 테니스복, 피트니스복을 트렌드 분석의 대상으로 하였다.

2. 액티브스포츠웨어의 이론적 고찰

2.1. 스포츠(sports)

2.1.1. 스포츠의 개념

스포츠라는 단어는 뛰놀다(s'êbattre)를 의미하는 동사 데스포르테(desporter)의 데스포(desport)라는 고대 프랑스어에서 유래한 것으로, 훗날 영국으로 유

입되면서 16세기에 '디스포'(disport)로 변형되고 그 후 스포츠가 되었다. 스포츠는 주로 운동경기를 의미하며 좁게는 경쟁을 수반한 운동에서부터 넓게는 놀이에 이르기까지 신체활동을 통한 유희의 추구라 할 수 있다.

2.1.2. 산업시대 이후 스포츠의 특징

A. Guttman은 현대스포츠의 특수한 면모를 세속주의, 기회의 균등, 역할의 전문화, 합리화, 사무화, 물량화, 기록 추구의 일곱 가지로 나누어 설명하였는데 이 특징은 현대스포츠가 도전의 수준에 있어서 질적으로 향상되었고 또한 양적으로 증대되었다는 것을 말해 준다. 다시 말해 스포츠의 고도화와 대중화 두가지가 모두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1].

특히 스포츠의 대중화는 과거 여가의 특성을 가진 스포츠가 유한계급의 전유물이었던 것에 반해 산업시대를 거치며 일반 대중에게 보급되어 즐겨 행해지도록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대중을 파악하기에 또 그 의미, 내용이 다르게 되지만, 일반적으로는 스포츠가 성, 연령, 직업, 지역, 사회적 지위나 신분 등의 각종 사회적 속성의 상위(相俤)에도 불구하고, 그 사회를 구성하는 많은 사람들과 친숙하며, 생활의 내용으로 즐길 수 있게 되는 것[2]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스포츠의 대중화에는 전술했던 여가시간의 증가와 부의 확산, 스포츠 물품의 제조기술 발달 등이 큰 기여를 했지만 이 외에도 수송수단의 발달로 인한 쉬운 스포츠 참여와 전신과 출판 인쇄술의 발달, 재봉틀의 발명으로 인한 유니폼의 대량 생산 등 여러 가지 사회·문화적 요소들이 상호 보완적인 영향을 미쳐왔다. 또한 여성 해방운동이나 젊음을 추구하는 가치관의 변화 등의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 스포츠는 점점 더 다양화, 전문화, 대중화 되어 가며 20세기 각종 비즈니스나 정치, 예술, 영화, 광

고, 패션 디자인 등 사회 전반에 걸친 모든 분야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2.2. 스포츠웨어(sportswear)의 개념

스포츠웨어는 처음 1890년대에 테니스, 골프, 자전거 타기, 수영, 스케이트, 요트, 사냥 등을 할 때 착용하는 의복을 가리키는 말이었다가 1920-1930년대에는 스웨터, 스커트, 블라우스, 팬츠, 반바지 등 스포츠를 관람할 때 입는 캐주얼웨어를 가리키는 말로 대중적으로 사용되었다. 그리고 1960년대 말 이후 스포츠 의류의 기본 개념 하에 일상적인 패션으로까지 그 의미가 확대되었는데 특히 미국인들의 형식에 얽매이지 않는 라이프스타일을 반영하는 개념으로 변화하였다.

따라서 현재 스포츠웨어는 운동 경기, 개인적 운동과 취미로 하는 운동 등에 착용하는 피복류의 총칭으로 경기를 위한 운동복과 운동 전후에 입는 의복, 스포티한 캐주얼 의류를 모두 의미하는 상당히 광범위한 단어로 사용되고 있다. 그중 일련의 스포츠활동을 위한 의복을 액티브 스포츠웨어(active sportswear) 또는 두 스포츠웨어(do sportswear)라고 구분지어 사용한다.

그밖에 현재 스포츠웨어와 관련한 여러 가지 용어들의 개념은 다음과 같다.

스포티브룩(sportive look)은 1963년 추동 파리 컬렉션에서 사용된 용어로 현재 각종 작업복이나 액티브 스포츠웨어의 실용성을 목적으로 한 소재, 디테일 등의 요소를 일상복에 응용한 것을 말한다.

스포츠룩(sports look)은 액티브 스포츠웨어를 그대로 일상복으로 패션화한 것으로 스키웨어, 조깅 슈트, 테니스 웨어, 다운 베스트, 다운 재킷, 아노락 등을 특정 신체 활동의 목적 없이 일상적으로 착용하는 것이다.

스포츠캐주얼룩(sports casual look)은 캐주얼웨어

[1] R. Thomas, "Histoire du sport", 이규식(역), "스포츠의 역사", pp.18-19, 한길사, 2000.

[2] 박현미, "스포츠 교육의 미학적 고찰", 울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p.20-21, 1994.

군에 액티브 스포츠웨어 요소를 도입한 룩을 말하는 것으로 스포티브룩의 일종이다.

위에서 설명한 세가지 용어들은 스포츠웨어에 대한 정의가 아닌 스포츠웨어적인 요소가 일반 패션에 적용되는 경우에 대한 용어들로, 스포츠웨어의 이미지가 아닌 스포츠웨어의 목적을 중심으로 분류해보면 스포츠웨어는 크게 경기전문용(active sports clothes)과 관전용(spectators sports clothes)의 2가지로 나눌 수 있다. 경기전문용은 특정 스포츠를 하기 위해 규정한 경기용 유니폼과 스포츠에 적응하는 기능을 가진 복장으로 수영복·승마복·테니스복·스키복 등이 이에 속한다. 이에 대하여 관전용은 스포츠 관전에 편하고 단순하며 스포티한 복장이다.

본 연구에서는 운동시 착용하는 운동복으로 스포츠웨어의 의미로 한정되었고 특히 후반의 트렌드 분석에서와 같이 필요한 경우에 따라 액티브스포츠웨어로 구분해 사용하였다.

2.2.1. 19세기 후반 이후 스포츠의 변화에 영향을 준 사회문화적 요인

소득 수준의 향상 및 여가선용의 문화: 자연스러운 생활리듬에 따라 삶의 양식이 생겨난 전통사회에서와는 달리 19세기 산업혁명 이후 여가와 노동은 분리되었고 이것에서 여가의 상품화와 여가소외라는 논리의 토대가 마련되었다. 산업혁명 이전의 전통적인 공동체적 여가는 산업사회의 신흥중산층의 가치에 대립되는 것으로 신흥중산층이 근대산업사회에서 그들의 가치관과 생활태도를 위해 여가행태로 받아들인 것들이 선술집과 통속적 공연예술, 독서, 스포츠, 여행 등[3]이다.

19세기 후반 여가문화가 발달하게 된 또 하나의 이유는 정기적인 여가시간이 생긴 것이었다. 주 5일 반의 노동일이 널리 보급되게 되면서 규칙적인 노동시간이 생기게 되었고 그것은 전통적인 여가의 가치를 변화시키는 동시에 새로운 여가활동 또한

가능하게 하였다.

1920년대의 미국사회는 도시화가 급진전되면서 여가문화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 기본 골격이 형성되었는데, 자동차가 대중에게 보급되면서 이것은 파티, 영화관람, 여행, 드라이브 등 자동차와 관련된 각종 여가산업을 크게 발전시켰다. 또한 이 시기에 미국에서는 영화산업과 스포츠로 일컬어지는 문화 산업이 크게 발달하였다. 1차 세계대전 후 유럽의 영화산업이 퇴조하게 되면서 미국은 세계 영화시장을 거의 석권하였고 스포츠 분야에서도 권투, 레슬링, 야구 등 여러 가지 스포츠의 프로화로 인하여 황금시대를 구가하면서 스포츠의 대중스타를 대량 생산하게 되었다[4].

한편 1930년대에는 세계적인 대공황으로 인해 미국에서는 노동자의 최고노동시간을 35시간으로 제한하여 고용의 기회를 늘렸고 미국 정부는 이러한 노동정책과 함께 노동자들의 증대한 여가시간 때문에 여가정책에도 힘을 기울였다. 이 시기에 미국 정부의 주도로 지역회관, 공원, 유원지, 운동장, 수영장 등이 많이 건설되었다.

부의 과시: Veblen은 1899년 그의 저서 「유한계급론」에서 지위이론을 통해 의복을 설명하였다. 그는 의복과 유행은 착용자가 부자이고 부를 과시할 수 있으며, 유한계급의 일원으로 비천한 노동에 종사하지 않음을 나타낸다고 했다.

19세기의 유한계급들은 노동의 의무나 필요가 없는 만큼 그들에게 부여되었던 여가를 즐기기 위한 수단으로 사냥, 궁도 그리고 잔디에서 하는 크로켓 등 스포츠를 사용하였다. 스포츠 활동을 위한 옷은 현대적 관점에서 보면 완전히 비기능적이었지만 서서히 실용적으로 변화하였다. 옷의 기능적 실용성이란 스포츠가 생겨나기 전까지 육체적 노동을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편안한 옷은 유한계급들에게 가치가 없는 것이었다. 하지만 스포츠에

[3] 박재환, 김문겸, "근대사회의 여가문화", 서울대학교, 출판부, p.3, 1997.

[4] 김문겸, "여가의 사회학: 한국의 레저문화", 한울아카데미, pp.87-88, 1993.

참가한다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그 사람이 오락 활동에 시간을 할애할 정도로 충분한 시간적, 경제적 여유를 가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제 1차 대전 이후 부의 노골적인 과시를 통해 신분과 경제력을 드러내기보다는 골프, 스키, 요트, 승마와 같은 고급 스포츠 활동 등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과시의 수단이 되었다. 또한 이러한 스포츠 활동을 위한 의류의 착용은 그들의 경제력과 신분을 반영해주는 새로운 구별짓기 기호로 자리잡기 시작하였고, 스포츠 활동에 집착하게 되었다. 특히 전통적으로 상류계급적 유희에서 시작된 승마나 골프는 최근 보편화되었지만, 의복 형태와 디자인에서 큰 변화가 없는 것은 구별짓기가 기호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또한 현대에 와서 이러한 구별짓기의 기호로 사용되는 것이 스포츠웨어에서의 브랜드 마크이다. 처음 스포츠웨어에 브랜드 마크를 도입시킨 것은 20년대의 테니스 영웅이었던 Rene Lacoste로 그는 자신이 고안한 반소매 니트셔츠에 자신의 별명인 악어를 수놓았다. 이는 복식사상 브랜드 마크가 의복 바깥으로 등장한 최초의 사건이며, 이를 계기로 많은 스포츠웨어 상품들의 브랜드 마크가 외부에 부착되었고, 그 후 부와 신분의 새로운 상징적 코드가 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스포츠 활동뿐 아니라 스포츠 관람시의 복장에도 적용되었고 브랜드 마크 외에 고가 브랜드의 디자이너 명이나 라벨이 의복의 바깥에 표시되어 이를 착용한 사람의 부와 성공을 드러내주었다.

여성해방: “해방된” 여성에 대한 관념은 19세기 말에 구체화되기 시작하였다. 여성과 사회에서의 여성의 위치에 대한 새로운 태도는 교육과 스포츠의 결과였다. 미국에서는 1862년 모릴 랜드 그랜트 법의 통과되면서 전국적으로 주립대학이 설립되었고 이로 인해 남자뿐 아니라 여자들도 고등교육의 기회를 갖게 되어 남자들과 경제적인 면에서의 경쟁

을 하게 된 것이다.

여성 해방 운동의 표현은 여성들의 옷에서도 나타나게 되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Amelia Jenks Bloomer 여사가 고안한 블루머즈(bloomers)로 발목 길이의 헐렁한 바지형태였는데 이것은 큰 사회적인 반향을 일으켰다.

1890년대에 들어서 민속무용이 학교 커리큘럼에 채택되면서 여성체육이 더욱 발전하게 되었으며 1895년 자전거의 유행과 더불어 바지착용은 점차 고조화 되었다.

경제력과 교육을 바탕으로 한 여성들의 스포츠에 대한 열렬한 참여는 그들을 육체적, 사회적으로 자유롭게 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1920년 테니스 선수인 Suzanne Lenglen이 장단지 중간까지 올라오는 주름치마를 입고 코트에 나타나서 관중들에게 충격을 주었고 그것은 그 후 5년 동안 치마길이를 점차적으로 올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1920년대 자동차의 보급과 함께 여성의 스포츠 열은 높아지고 바지는 스포츠웨어로 필수품이 되었다. 긴 바지, 바지형 치마, 짧은 바지 등이 두드러지게 유행하여 여성의 바지 착용이 일반화되어 가고 있었다[5].

건강과 미에 대한 관심의 고조: 1920년대 이후 관습, 전통이나 부 등을 중시하던 사회의 가치관이 서서히 젊음으로 변화하기 시작했다. 1차 세계대전 이후 전시의 규율적이고 긴축됐던 생활에서 벗어나 자유와 즐거움을 누리기를 원했고 그것을 충족시켜주는 것 중의 하나가 스포츠였다. 1920년대 패션의 관심사 역시 스포츠였고 스포츠 스타들은 패션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마찬가지로 2차 세계대전 이후 베이비붐 출신의 아기들은 1960년대에서 1970년대 초에 걸쳐 청년층이 되었는데 이들은 미국 전체 인구의 20%에 해당하였다. 이 시대에 그들이 사회 전반에 끼친 영향력은 강력하여 사회적인 가치관이 젊음지향과 표

[5] 정홍숙, “서양복식문화사”, p.369, 교문사, 1997.

현의 자유로 이동하였다. 사회적 모방이라는 새로운 원리가 젊은 스타일에 부과되어 사람들은 사회적 위치나 성공을 의복을 통해 알리려고 하지 않고 젊음이나 젊은 모습의 매력을 포착하여 자신의 이미지를 나타내고 싶어한다. 젊음과 육체에 대한 승배는 동일시되어 자신에 대한 끊임없는 관심과 관리의 필요로 하고 나르시시즘적인 자기감시를 요구하게 되어서 이것은 건강과 몸에 대한 관심, 미에 대한 관심으로 표현되었다.

1970년대부터 인식되어온 건강에 대한 관심은 80년대에 들어와 더욱 고조되었고 1982년 배우 Jane Fonda가 에어로빅 엑서사이즈 비디오 테이프를 내놓으면서 엑서사이즈가 크게 인기[6]를 끌었다. 80년대 미국 사회에서는 그 어느 곳을 가도 헬스클럽에서 레오타드와 타이츠를 입고 체력관리를 하는 여자와 여가가 있지만 하면 도시의 한복판을 자전거로 달리거나 스포츠 게임을 즐기는 남자들을 흔히 볼 수 있었다. 19세기 후반과 20세기 초에는 육체문화가 등한시된 반면 현대에는 스포츠와 체력 단련에 대한 열정을 격찬하는 문화가 형성된 것이다.

의료기술의 발달로 인해 인간의 평균 연령은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1990년대 후반에 들어서면서 고령화가 심화되었다. 보다 나은 삶을 누리기 위한 수단으로써 젊음에 대한 관심이 노년층을 비롯한 대중들에게서 증대되었고 이것은 건강관리와 레저활동 등으로 나타났다. 성형수술이나 몸을 단련하는 것은 이미 사회적인 현상이 되어버렸다.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헬스, 러닝, 재즈댄스, 힙합댄스, 요가, 기수련 등 소위 실내에서 하는 짐스포르츠(gym sport)의 종목이 다양화되고 있으며 참여 인구 또한 급증하고 있다. 주 5일 근무제의 확산으로 인한 레저스포츠의 증가와 더불어 실내 체육에 대한 관심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스포츠웨어의 일상화와 대중화: 최근 삼성패션연구소가 전국 1,400명을 상대로 한 소비자 조사에 의하면 평소에도 거의 절반 이상이 ‘스포츠 스타일의 착장을 즐겨한다’는 결과가 나왔다[7].

또한 또 다른 리서치 발표는 20대 직장인의 73%가 캐주얼을 입고 출근하고 있으며 30대 역시 캐주얼 착장이 50.3%를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70, 80년대 스포츠 및 피트니스의 붐으로 인해 스트레치 소재의 운동복이 일상복은 물론 이브닝드레스로 사용되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것은 기존의 T.P.O에 따른 의복 착장의 개념이 무너져 포멀웨어(formal wear)와 인포멀웨어(informal wear)의 구분이 약화된 것을 보여준다.

1980년대에 랩퍼나 전문 운동선수들이 도시의 남자 청소년들에게 역할 모델이 된 것처럼, 스포츠는 문화 속에서 중요성이 증가되었고 스포츠의 영향을 받은 스타일은 상류층에서부터 일반 사람들에게까지 번지게 되었다[8].

1980년대 후반부터 90년대 전반의 미국 거리패션을 리드해 온 것은 다운타운의 아프리카계 미국인으로 MTV와 프로 스포츠의 영향으로 다운타운의 아프리카계 미국인의 사이에서는 액티브 스포츠웨어가 패션 트렌드 역할을 하게 되었다. 그 트렌드가 백인 거주지역에까지 확대되어 전 미국이 액티브 스타일 일색이 되어버린 것이 80년대 후반에서 현재까지의 미국의 스트리트 스타일 붐이다[9].

국내에서는 지난 90년대 초반 스포츠웨어와 캐주얼웨어의 크로스 오버 경향이 당시 붐을 조성한 길거리 농구와 맞물려 폭발적인 성장을 이룩했고 이로 인해 스트리트 패션이 크게 유행하였다. 또한 IMF 이후 소비자의 합리적인 소비문화와 자유롭고 편안한 옷에 대한 선호, 그리고 실용적인 패션추구의 영향으로 기능성 위주의 스포츠웨어가 스트리트 패션으

[6] C. Lee-Potter, "Sportswear in Vogue since 1910", Thames and Hudson, p.9, 1984.

[7] Fashoinbiz, p.190, April, 2002.

[8] D. Jones, "The Golden Fleece, Winning the Design of Sports", p.92, Laurence King Publishing, 1998.

Table 1. 스포츠의 변화에 영향을 준 사회문화적 배경

요인	사회문화적 배경	스포츠웨어의 특징
소득수준의 향상 및 여가선용의 문화	다양한 여가 형태 발생 정기적인 여가시간 도시화, 문화산업 번성 자동차의 보급	전통적 의복 습관에서 탈피 다양한 의복의 경험
부의 과시	상류층의 여가활동 스포츠를 통한 부의 과시	브랜드 마크의 부착 명품브랜드의 스포츠웨어 라인 전개
여성해방	여성의 스포츠 참여 여성의 학력 상승 여성 취업률의 증가 여성의 지위 향상	블루머, 토폴리스 수영복 브라 추방 운동 스포츠웨어로서의 바지착용 여성의 테일러드 슈트 착용
건강과 미에 대한 관심 고조	고령화 사회 진입 젊음 추구 피트니스, 마라톤의 유행	스포츠슈즈의 일상화 80년대 피트니스복의 일상화
스포츠의 일상화와 대중화	무경계의 시대 T.P.O에 따른 착용 약화 익스트림 스포츠의 유행 스포츠 감성 부각	편한 옷의 선호 스트리트 패션 정장의 캐주얼화
과학기술의 발달	신소재의 발명 하이테크 소재의 발명 -스트레치사, 방수 등	의복의 내구성 향상 밀착성 있는 수영복 기능성 스포츠웨어의 발달
미디어의 확대	전신의 발달 TV, 인터넷의 보급	프로스포츠웨어의 영향 농구화의 유행

로 전환되었다.

과학기술의 발달: 1939년 최초로 개발된 합성 섬유 나일론은 낮은 생산비와 뛰어난 내구성을 특징으로 하였고 1958년 듀퐁(DuPont)사에서 개발한 라이크라(Lycra)와 함께 스포츠웨어의 발전에 크게 이바지하게 되었다. 나일론을 사용한 수영복은 1964년 도쿄 올림픽에서 처음으로 선보이게 되어 이때부터 수영경기에서의 본격적인 기록탄생이 시작되었다. 1972년 뮌헨 올림픽에 처음으로 라이크라가 사용된 수영복이 등장하였고, 이후 나일론/라이크라 혼방의 얇고 가벼운 소재로 밀착성이 향상되었다. 1973년 동독 여자 올림픽 수영팀은 낡은 나일론 수영복 대신에 스판덱스 수영복을 입고 신기록을 세웠다. 이러한 신축성이 뛰어난 스트레치사와 스판덱스의 개발은 운동에 대한 열기와 함께 사이클쇼

츠나 레오타드 등의 스포츠웨어를 인기 있는 패션 아이템으로 등장시키기도 하였다.

20세기 중반부터 급속히 발전한 섬유과학은 스포츠웨어와 스포츠의 발전에 큰 기여를 하여 유체저항을 감소시킬 수 있는 저저항, 초경량, 고신축성 소재와 디자인을 통해 스피드 경기의 기록이 단축될 수 있었고, 투습방수, 흡한흡수, 흡한속건성 등의 소재 개질을 통해 야외 레저 스포츠 활동시 쾌적감을 증진시켰다.

미디어의 확대: 미국의 스포츠는 19세기 말에 많은 발전을 가져왔는데 그 요인중 하나로 스포츠의 기술적 혁명과 함께 스포츠가 경기로서 대중에게 관심을 끌 수 있게 한 전신과 신문의 역할을 들 수 있다. 전신의 발달과 보급으로 동시에 다른 도시로 중계방송이 되기 시작했고 신문은 1890년 이후 스

[9] Fashion Forum, Vol. 50, p.40, August, 1997.

스포츠를 개발함으로써 스포츠는 대중에게 다가
게 되었다[10].
1900년대에 들어서면서 라디오와 TV, 영화 등 미

디어의 보급으로 스포츠의 인기는 더욱 뜨거워졌다.
그리고 1990년대 후반에 들어서면서 급속도로 발
전한 과학기술은 인터넷을 비롯한 다양한 매체의



Figure 1. 1940년대 비키니.



Figure 2-1. 1910년대 스키복.



Figure 2-2. 1950년대 스키복.



Figure 3-1. 1920년대 테니스복.



Figure 3-2. 1950년대 테니스복.



Figure 4-1. 1900년대 골프복.



Figure 4-2. 1910년대 골프복.



Figure 5-1. 1930년대 피트니스복.



Figure 5-2. 1970년대 피트니스복.

발달로 엔터테인먼트 스포츠가 급격한 인기를 얻기도 하였다.

월드컵이나 올림픽 같은 주요 스포츠 이벤트들은 스포츠에서 패션이 중요시 됨과 동시에 스포츠 의류와 소재의 기술적인 발달을 가져왔다. 프로 운동 선수들이 입은 운동복은 아마추어 선수들의 운동복이나 일반 의류의 디자인에도 영향을 미쳤다. 서구의 이상적인 신체 조건에 가까운 현재의 스포츠 스타의 역할은 대중 소비 시장에 전문 스포츠웨어를 판매하는 도구로까지 확장되었다. 스포츠용품 회사나 스포츠웨어 회사들은 올림픽이나 월드컵 축구, 테니스, 골프 등의 여러 프로 스포츠 대회나 행사 등을 후원하는 방식 등으로 미디어를 통해서 그들의 브랜드 이미지를 전 세계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2.2.2. 스포츠웨어의 시대별 변화

수영복: 1830년경에는 넉넉하게 긴 소매의 로브를 입고 수영을 했는데 이 로브는 오랫동안 수영복으로 이용되다가 1860년대부터 서서히 새로운 형이 모색되어 1870년대에 겨우 배싱드레스(bathing dress)가 등장하였다.

남성은 1830년대까지 알몸으로 수영하다가 1840년대에 수영 팬츠가 모드로 되었고 1860년대에 수영 팬츠가 정착, 1870년대가 되자 원피스 형의 수영복을 입을 수 있게 되었다. 한편 여성은 길고 헐렁한 봉투와 같은 것을 착용하다가 1860년대가 되어 수영복으로 블루머즈를 입게 되었다[11].

1920년대 수영복은 의복의 한 종류로 정착되면서 짧은 바지로 된 원피스 스타일이나 니트 직물의 끈없는 원피스형 수영복인 마이오(maillot)가 처음 등장하였다.

남자 수영복은 20세기 들어 슬리브리스에 전체적으로 길이가 짧아졌는데 1920년대에는 셔츠와 트렁크가 분리된 투피스형이 원피스와 함께 유행하였

으며, 1920년대 말에는 네크라인과 암홀을 도려낸 수영복을 선보였다.

1930년대의 수영복은 아직 원피스가 보편적이었지만 1920년대보다 인체의 노출이 많아졌으며, 일광욕을 즐기는 여성들은 처음으로 해변에서 투피스 수영복을 입었다. 1933년부터 드레스처럼 등이 없는 홀터넥 수영복이 나타났다.

1940년대 전시의 원단 제한과 물자 부족으로 수영복의 소재에 실크나 울 대신 면이나 마 등을 사용하였다. 이로 인해 전후 수영복은 훨씬 단순해졌으나 대신 브라와 탑으로 구성된 진정한 비키니가 등장하였는데 이 비키니는 ‘핵폭탄 아래 가장 중요한 발명’이라고 불리기도 하였다(Figure 1)[12].

대부분의 원피스 수영복은 고무탄성섬유가 혼합된 펄론태피터로 만들어졌다. 1957년 스피도(Speedo)에서 개발한 최초의 나일론 경기용 수영복이 등장하였고 1958년 듀퐁에서는 라이크라를 발명해 수영복의 개념이 바뀌게 되었다[13].

스키복: 1910년대에 여성들은 스키복으로 블루머를 입고 그 위에 길게 슬릿이 들어간 스커트를 덧입다가(Figure 2-1) 1920년대에 노르웨이 재킷과 발목까지 오는 끝이 오므라드는 크리스티아니아 바지를 입었다.

1930년대의 스키복은 길고 좁은 실루엣을 가졌고 색은 점차 화려해지다가 1940년대에 새로운 타이트한 스키바지가 유행하였다. 방수처리되는 개버딘 바지였는데 직물의 비효율성으로 인해 무릎부분에 지퍼를 달았다.

1950년대에는 방수천으로 아노락이나 블루중, 재킷을 만들었으며 보온을 위해 킨팅도 사용되었고(Figure 2-2) 대개 안에다 모피나 플러시를 댔다. 1955년에는 Billy Bogner가 탄력있는 소재로 만든 원피스 스키복을 선보임으로써 스키 패션에 혁명을 일

[10] 이남수, “서양 근대스포츠의 도입이 한국체육에 미친 영향”,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1.

[11] Swimwear Story, *Fashoin Forum*, p.23, Vol.33.

[12] 김민자 외, “현대패션100년”, 교문사, p.151, 2002.

오졌다. 기능성도 고려되어서 스키 장갑 손바닥에 지퍼달린 주머니가 달려 스키패스를 쉽게 만들었고 재킷 앞에는 주머니가 달렸다.

1960년대 스포츠웨어는 점차 스포츠 패션이 되어갔지만 특히 스키복에서는 유행 외에도 기능성이 중요시되어 신축성있는 재료를 사용하여 활동성을 높이고 나일론을 사용하여 방풍, 방수 기능을 더하기도 했으며 솜을 넣어 누벼서 마찰 면적을 크게 하였다. 또한 클립형 플라스틱 스키부츠가 소개되어 부츠의 효율성이 높아졌다.

테니스복: 19세기 말에 여성들은 테니스 복장으로 일상복과 거의 다르지 않은 재킷과 치마, 블라우스를 입어야 했고 남성들도 테니스를 칠 때 밝은 색의 긴 플란넬 바지를 입고 흰 셔츠에 밝은 색의 넥타이를 하고 흰 구두를 신었다.

20년대에 패션의 변화에 따라 테니스 스커트도 짧아졌고 프랑스 챔피언 Suzanne Lenglen은 색이 있는 반도(bandeau)를 두르고 글자 도안이 들어간 소매 없는 카디건을 입어 주목받았고[14](Figure 3-1), 또한 장식으로 검정색을 테니스복에 사용하였다. 남자들도 긴 소매에 긴 바지를 입다가 1926년 요크공이 팔꿈치 위쪽 길이의 짧은 소매를 입기 시작했다.

1930년대 테니스를 칠 때 여성들은 여전히 짧은 치마를 입었고 때로는 무릎길이의 치마바지를 입는 경우도 있었다. 1940년대 초기에는 고어스커트(gore skirt)가 테니스복으로 유행이었다가 후반에는 개더스커트가 유행했다.

1950년대 중반에 스포츠웨어에는 영구 기계주름이 나타나서 테니스복에도 사용되었다(Figure 3-2). 테니스 반바지는 짧아졌고 옆에 스트라이프가 장식되었다. 1960년대의 테니스복은 화려한 줄무늬와 애플리케가 유행이었고 이때 처음으로 색상이 있는 테니스복을 입게 되었고 홀터넥이나 배를 드러내는 디자인도 허용되었다.

골프복: Lee-Poter가 “골프복은 항상 같을 것이다”라고 했듯이 길이와 직물은 다양해졌지만 일반적으로 골프복에서 강조되는 점은 20세기 내내 동일했다[15].

1900년의 여성 골퍼들은 바닥 길이의 긴 치마와 디자인이 단순한 셔츠를 입고 갈색 앵클 부츠, 격자 디자인의 큰 후두건 모자 혹은 트위드 케이프와 어울리는 테가 좁은 모자를 썼다[16](Figure 4-1). 남자들은 아주 헐렁한 니커보코스를 입고(Figure 4-3) 여기에다 무늬 있는 스포츠 색코트나 노포크재킷을 입었다(Figure 4-2)[17].

1930년대에는 대담해진 테니스복의 영향으로 소매 없는 탑이나 스타킹을 신지 않는 것이 골프복에서도 허용이 되었지만 여전히 바지는 착용하지 못했다.

1950년대에 들어서면서 스포츠웨어에서의 경직된 사고가 사라져 플란넬이나 코듀로이 바지가 허용되었고, 체크무늬 스카프와 터틀넥 스웨터가 함께 입혀졌다. 1960년대 말에는 검은색 비닐 스커트나, 무릎높이의 양말에 기하학적인 무늬가 있는 옷도 허용되었고 큰 라펠의 재킷이나 베이커보이 모자(baker-boy hat) 등이 유행하였다.

1970년대에는 다양한 직물들이 스포츠웨어로 사용되었다. 70년대의 톱보이 룩의 영향으로 네이비와 화이트의 큰 체크무늬나 트위드 캡 등이 캐주얼한 형태로 골프복으로 쓰였다[18].

피트니스복: 1930년대에는 피트니스와 균형(평형)이 유행하여 요가에서 많은 것들을 채용했는데[19] 자유로운 동작을 위해서 밀착되는 붙는 탑과 짧은 쇼츠를 착용했다(Figure 5-1).

그 이후 저지 등의 신축성 있는 소재를 기본으로 하여 꾸준히 변화하다가 피트니스복이 널리 입혀지게 된 것은 1970년인데 이 때는 운동과 몸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아진 시기로, 이에 따라 활동적이고 실용적인 운동복이 발달하였다. 조깅용 트랙수트(track suits)가 여러가지 색상으로 생산되었고, 이것

[13] Christina Probert, op. cit., pp.56-57.

[14] J. Herald, “Fashions of a decade the 1920s”, p.52, B.T.Batsford Ltd., London, 1991.

은 일상복과 디스코, 파티 웨어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 롤러 스케이트가 크게 인기를 끌자 라이크라나 다른 사이니한 스트레치 소재가 유행하였다 [20].

라이크라를 사용한 디스코웨어가 대담한 스타일로 디자인되었고 레그워머(leg warmer), 레오타드 등도 인기를 끌었다[21].

1980년대에는 에어로빅복으로 전통적인 레오타드나 타이츠가 사용되거나 트랙슈트에서 영향을 받은 플레이어인 쇼츠나 재킷을 입기도 하였다. 육상 금메달리스트 Florence Griffith-Joyner가 타이트하고 화려한 러닝복으로 인기를 끌자 라이크라 쇼츠나 레오타드가 운동복뿐 아니라 파티복으로도 입혀졌다. 라이크라 이후 고무의 일종인 라텍스(latex)가 수상 스포츠와 수영복, 밀착되는 옷에 사용되기 시작했다[22].

여성을 위한 보디빌딩과 역기 운동은 1980년에 붐을 일으켰는데 Norma Kamali는 이 역도복을 에어로빅복에 도입했다.

운동복이 평상복으로 받아들여질 정도로 대중화되면서 트랙 슈즈(track shoes), 레그 워머, 러닝 슈즈(running shoes), 발레 펌프스와 머리띠가 패션으로 받아들여지게 되었고, 스니커즈가 스포츠나 레저용으로 착용되었다.

3. 1990년대 이후 액티브 스포츠웨어의 트렌드

3.1. 1990년대 이후 액티브 스포츠웨어의 트렌드에 대한 내용 분석

트렌드 분석 자료로는 연구방법에서 밝힌 스포츠웨어 전문 잡지를 이용했다. 트렌드에 대한 분석이 나와 있는 경우에 내용을 참조하였고 분석 내용이 없는 경우 분석대상 사진을 모아놓고 빈도수에 따라서 트렌드를 분석하였다.

표에서 사용된 트렌드 분류는 박신희의 연구[23]에서 사용한 트렌드 분석모델중 액티브 스포츠웨어의 트렌드에 적용될 수 있는 일부를 선택하여 사용하였다.

각 스포츠웨어의 트렌드 분석은 Table 2~6과 같다.

3.2. 논의

앞서 내용분석에 의한 수영복, 스키·스노우보드복, 테니스복, 골프복, 피트니스복의 트렌드를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990년대 전반에는 표현주의적 측면의 트렌드가 강하게 나타나 내추럴리즘의 영향을 받은 에콜로지나 에스닉 등이 주로 표현되었다. 이러한 트렌드는 액티브스포츠웨어의 색상이나 프린트 등으로 표현되었고 또는 각각의 스포츠웨어에 따라 라인이나 소재 등으로도 나타났다. 1990년대 중반을 넘으면서 1960-70년대의 영향을 받아 미니멀리즘이 표현되기 시작하였고 점차 기능주의적인 트렌드를 형성하게 되었다. 1990년대 후반에는 퓨처리즘이나 기능주의가 모든 액티브 스포츠웨어의 트렌드를 이끌어나갔다. 이것은 2000년대가 되면서 다시 다원화되어 기능주의를 바탕으로 한 표현주의가 여러 가지 형태로 혼합되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시기별로 액티브 스포츠웨어에서 나타난 트렌드는 수영복, 스키·스노우보드복, 테니스복, 골프복,

[15] *Ibid.*, p.9.

[16] 이영민, “스포츠웨어에 관한 연구 -미국 스포츠웨어의 전통성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3.

[17] Ingrid Loschek, *op. cit.*, p.96.

[18] *Ibid.*, p.85.

[19] *Ibid.*, p.35.

[20] J. Herald, “Fashions of a decade the 1970s”, p.52, B.T.Batsford Ltd., 1991.

[21] 정재희, “20세기 여성 스포츠웨어에 관한 연구 -1910년~1980년 구미여성 스포츠웨어를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1.

피트니스복 각각의 특성에 따라 다소 다른 방법으로 표현되었다. 1990년대 초반의 내추럴리즘은 거의 모든 액티브 스포츠웨어에 강하게 표현되어 자연무늬, 꽃무늬, 추상무늬 등 현란한 프린트가 모든 스포츠웨어에 적용된 것을 볼 수 있었다. 색상에 있어서는 각 액티브 스포츠웨어의 기본적인 특성이나 디자인에 맞게 비비드한 톤이나 부드럽고 온화한 톤으로 나타났다.

1990년 중반을 지나면서 60, 70년대 복고풍의 영향으로 미니멀리즘, 스포티즘이 강화되었고 디자인, 색채 등이 단순하고 깔끔하게 변하는 모습이 모든 스포츠웨어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단순하게 변화하는 디자인으로 인해 액티브 스포츠웨어는 점차 기능성에 관심을 두게 되어 1990년대 후반에는 기능주의가 강하게 표현되었다. 이 기능주의는 신체 활동이나 운동효과를 더욱 극대화시킬 수 있는 측면에서 실용적으로 표현되었다. 이러한 기능주의의 표현은 2000년대에 들어서도 계속 이어졌는데 여기에 다시 다양한 사조들이 복합적으로 표현되어 에콜로지나 페미닌, 캐주얼 등이 동시에 나타나는 다원화된 트렌드를 보였다.

스포츠웨어의 연도별 주요 트렌드는 Table 7과 같다.

1990년대와 2000년대에 나타난 액티브 스포츠웨어의 트렌드 변화는 여성복의 트렌드와 상당히 일치하는 모습을 보인다. 박신희[24]에 따르면 90년대 초반 국내의 컬렉션에서는 표현주의적 시공간의 개념이 내추럴리즘과 원시·역사주의, 전통주의로 표현되다가 점차 기능주의적인 퓨처리즘, 미니멀리즘으로 변화하였고, 90년대 후반이 되면서 표현주의적 측면과 기능주의적 측면의 개념이 융합되어 나타났다. 액티브 스포츠웨어의 트렌드가 여성복 트렌드와 비슷하게 변화한다는 것은 액티브 스포츠웨어가 여성복 트렌드의 영향 아래에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도 하지만 1990년대 후반 이후로 나타난 기능주의나 스포티즘은 액티브 스포츠웨어가 역으로 여성복 트렌드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1990년대 이후 라이프스타일의 변화와 스포츠의 생활화, 여가선용 문화의 확대 등으로 인해 액티브 스포츠웨어가 점차 캐주얼웨어화, 레저웨어화하는 경향을 보였다. 특히 일상복으로 착용이 용이한 골프복이나 최근의 스포츠웨어의 일상화로 평상시에도 널리 착용되어지고 있는 스키복, 피트니스복 등에서 그러한 경향이 뚜렷이 나타났다. 이같은 특징을 가진 액티브 스포츠웨어에서 기능성은 주로 옷의 구성적인 디테일이나 소재에서 추구되어지고 색상, 실루엣, 일반적인 여성복이나 평상복의 트렌드를 따르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수영복은 경기나 수영을 위한 운동복으로서의 기능 외에 레저웨어 개념의 비치웨어로서의 기능도 함께 가지기 때문에 이런 경우 여성복 패션 트렌드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었다.

4. 결론

본 연구는 액티브 스포츠웨어의 사회문화적 배경과 사적 고찰을 통해 그 발달 과정을 알아보고 최근의 액티브 스포츠웨어의 트렌드 경향과 조형적인 특성을 고찰함으로써 미래의 액티브 스포츠웨어의 트렌드를 예측하기 위한 기초적인 패션정보를 제공하고자 함이며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스포츠는 체력이나 기술을 필요로 하는 활동으로서, 오락으로 즐기거나 승부를 겨루기 위한 신체 운동을 의미한다. 스포츠는 시민 사회의 성립이나 국민 국가 형성기를 거치며 구체적인 형태를 가지게 되었고 여가시간의 증가와 기술의 발달, 미디어의 발달, 가치관의 변화 등 여러 사회 문화적 배경을 통해 대중화, 전문화, 다양화되었다.

둘째, 스포츠웨어는 운동경기, 개인적 운동과 취

[22] V. Carnegie, "Fashions of a decade the 1980s", p.48, B.T.Batsford Ltd., 1990.

[23] 박신희, "1990년대 해외컬렉션과 국내컬렉션의 패션트렌드 비교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0.

Table 2. 수영복의 트렌드 분석(1993~2002년)












	1993년	1994년	1995년	1996년	1997년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그림 6-1] [그림 6-2]	 [그림 6-3]	 [그림 6-5]	 [그림 6-7]	 [그림 6-9]	 [그림 6-11]	 [그림 6-12]	 [그림 6-13]	 [그림 6-14]	 [그림 6-16]	 [그림 6-19]
주요 테마	내추럴리즘	내추럴리즘	내추럴리즘	완체리룩, 에스닉	레트로	스포티	스포티, 페미닌	퓨처리즘	페미닌, 럭셔리	페미닌, 스포티	
형태 및 특징	원피스형태, 스웨이컷 테그	하이컷 테그, 어깨끈이 없는 스타일, 파레오	언더 와이어 사용 스트링& 스트랩 장식, 하이컷& 스웨이컷 테그	시스루, 스포티하고 단순한 라인, 메탈릭소재	다양한 루피스 형태, 신수용 라인, 하이컷 테그, 벨트 달린 쇼츠	스포티한 라인, 신수용 라인, 남성용 버뮤다	덧입는 탑, 파레오	로우컷 스타일, 힙허거 브리프, 비키니 탑, 비대칭 디자인	레이어드 스타일	비치웨어, 랩스커트, 반바지, 슬리브리스 원피스의 3·4피스	
장식	크고 사실적인 꽃무늬, 추상무늬, 주름을 이용한 페미닌한 디자인	자연무늬 추상무늬	꽃무늬, 추상무늬, 스트라이프, 방울무늬	꽃무늬, 정글모티프, 스트라이프, 나신	기하학적 패턴, 체크, 스트라이프, 꽃무늬	흰색 바인딩, 스트라이프, 에스닉 스트라이프, 타이포, 꽃무늬	꽃무늬, 자염무늬, 바인딩	하이테크 소재, 꽃무늬 자수, 이플라케, 프린트	꽃무늬, 페이즐리, 하와이안, 꽃무늬	스트라이프, 가죽끈의 가죽끈의	
주요 색상	선명하고 밝은 색, 핑광색	선명하고 밝은 색, 핑광색, 베이지, 브라운, 화이트	오렌지, 블루, 핑광색, 베이지, 브라운, 화이트	실버, 블루, 베이지, 브라운, 에메랄드 그린	오렌지, 옐로우, 블루, 그린	블랙, 네이비, 화이트, 오렌지	블루, 오렌지, 옐로우	선명한 색, 터파츠, 핑크, 레드, 화이트	밝고 가벼운 색, 레드, 블루, 오렌지, 핑크, 레몬, 라일락	레드, 체크, 오렌지, 네이비, 골드, 브라운	

Table 3. 스키복의 트렌드 분석(1993~2002년)


















	1993-1994년	1994-1995년	1995-1996년	1996-1997년	1997-1998년	1998-1999년	1999-2000년	2000-2001년	2001-2002년	
주요 테마										
형태 및 특징	 [그림 7-1]  [그림 7-2]	 [그림 7-3]  [그림 7-4]	 [그림 7-5]	 [그림 7-6]  [그림 7-7]	 [그림 7-8]  [그림 7-9]	 [그림 7-10]  [그림 7-11]	 [그림 7-12]  [그림 7-13]	 [그림 7-14]  [그림 7-15]	 [그림 7-16]  [그림 7-17]	기능주의
장식 및 소재	허리조이는 아노락 스타일 여성용 슬림한 타이즈 풀리플리스	패치워크, 스티치선, 로고사용, 에스닉한 프린트, 지퍼·단추로 장식	페이크워, 스티치선, 로고사용, 에스닉한 프린트, 지퍼·단추로 장식	스티치 이용 패치워크	평범한 스타일링 유행 내구성있는 기본적인 실루엣 크롭트 재킷, 파카 디테일 이용 장식 코팅된 투웨이 스트레치소재 하이테크 소재	액티브 스포츠웨어의 느낌 강조 단순한 라인	드롭스트링 헨드메이드모자 UV 차단소재, 폴달나일론	배기 팬츠, 버블재킷 미끄럼방지, 열처리 봉제선, 기능적 포켓	화려한 스노우 장비	파이핑, 지퍼장식 심실드, 거드랑이 지퍼 등 기능성 강화
색상	다크그린, 퍼플, 네이비	네이비, 블루 스카이블루, 핑크 블랙, 옐로우	레몬옐로우, 로얄블루, 브라이언트레드 화이트, 블랙, 레드, 핑크	브라운, 베이지, 다크블루, 옐로우, 옐로우	낮은 채도 크리미화이트, 레드 옐로우, 블랙	미드나잇블루, 일레트 리블루, 형광옐로우, 형광옐로우, 블랙, 블루, 실버, 레드	라이트샌드베이지, 크림, 카키, 그레이 파스텔톤의 옐로우, 스카이블루	차분한 톤, 그레이, 블루, 망고, 라이트블루	베이지, 카키, 그레이, 샌드 스카이블루, 옐로우, 옐로우	기능주의

Table 4. 테니스복의 트렌드 분석(1993~2002년)

	1993년	1994년	1995년 - 1996년	1997년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주요 테마										
형태 및 특징	<p>내추럴리즘</p> <p>[그림 8-1]</p> <p>[그림 8-2]</p>	<p>내추럴리즘</p> <p>[그림 8-3]</p> <p>[그림 8-4]</p>	<p>내추럴리즘</p> <p>[그림 8-5]</p>	<p>스포츠</p> <p>[그림 8-6]</p>	<p>레트로</p> <p>[그림 8-7]</p> <p>[그림 8-8]</p>	<p>기능주의</p> <p>[그림 8-9]</p> <p>[그림 8-10]</p>	<p>기능주의</p> <p>[그림 8-11]</p> <p>[그림 8-12]</p>	<p>기능주의</p> <p>[그림 8-13]</p>	<p>기능주의</p> <p>[그림 8-14]</p> <p>[그림 8-15]</p>	
장식	<p>여유있는 실루엣의 셔츠, 무릎길이의 스커트, 무릎길이의 반바지</p> <p>꽃무늬, 추상무늬</p>	<p>여유있는 실루엣의 셔츠, 긴 길이의 셔츠</p> <p>슬리드 칼라나 프린트를 부분적으로 장식 기하학적 무늬, 자연 무늬</p>	<p>여성스러운 허벅지 중간 길이의 캐디스커트, 플리츠 스커트</p> <p>소매, 칼라 밑단에 질러 장식 추상무늬를 비대칭으로 사용 로고 프린트물 원포인트 장식</p>	<p>단순한 디자인 슬림한 실루엣</p> <p>프린트를 사라지고 단색의 배색</p>	<p>깔끔하고 단순한 라인 북고풍의 영향 편스포츠의 느낌</p> <p>투톤 폴리에스터 소재 작은 포켓</p>	<p>슬림한 원피스형 슬리브리스형태</p> <p>스트라이프 장식 원색끼리의 배색</p>	<p>기능주의</p> <p>소매 없는 탑 슬림한 원피스형</p> <p>기본색상으로 화이트 외에 레드, 네이비 등이 나타남</p>	<p>기능적인 실루엣</p> <p>스트라이프 장식</p>	<p>원피스, 투피스의 슬림한 실루엣 V-neckline 티셔츠</p> <p>스탠드 칼라 벨트 장식</p>	<p>블루, 멜로우, 레드 등의 원색 화이트</p>
색상	핑크, 퍼플, 네이비	체도 낮은 블루, 네이비	레드, 멜로우, 네이비	화이트, 블루, 오렌지	블루, 블랙	화이트, 블랙, 오렌지	레드, 멜로우, 네이비	화이트, 네이비	블루, 멜로우, 레드 등의 원색 화이트	

Table 5. 골프복의 트렌드 분석(1993~2002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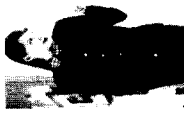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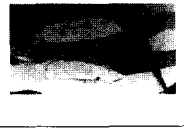
골프복	1993년	1994년	1995년	1996년	1997년	1998년	1999년~2000년	2001년	2002년
주제	 [그림 9-1]	 [그림 9-3]	 [그림 9-5]	 [그림 9-7]	 [그림 9-9]	 [그림 9-11]	 [그림 9-13]	 [그림 9-15]	 [그림 9-17]
형태 및 특징	 [그림 9-2]	 [그림 9-4]	 [그림 9-6]	 [그림 9-8]	 [그림 9-10]	 [그림 9-12]	 [그림 9-14]	 [그림 9-16]	 [그림 9-18]
장식	내추럴리즘	클래식	캐주얼	클래식	스포티, 캐주얼	캐주얼, 페미닌	레트로	캐주얼	자연스러움
색상	여유있는 실루엣 넓은 통의 바지	폴로칼라셔츠, 간바지, 반바지 여: 오버사이즈 스웨터, 쇼츠, 반바지	넓은 소매, 여유 있는 실루엣 아웃도어 느낌의 채킷 레이어드 착장: 조끼, 스웨터	다소 슬림해진 실루엣	슬림한 실루엣	일상복이나 레저용 으로 착용 가능 우아하고 여성스 러운 디자인	슬림한 실루엣 트렌디한 디자인	슬림한 실루엣 캐주얼웨어 느낌	슬림하고 퍼트감 있는 실루엣 아웃도어웨어 스타일
소재	스트라이프, 아가일체크, 체크무늬, 체크	칼라, 포켓에 스트라이프 장식이나 지수 아구모자, 헌팅캡	소매끝과 밑단에 밴드 처리 지퍼장식 아가일체크	체크무늬, 줄무늬, 마이크로 패턴, 꽃무늬	스트라이프, 체크 지퍼장식 캐주얼한 코디: 원면티셔츠 착용	슬리드 질러블 이용한 매치	작은 체크, 물방울무늬	스트라이프와 단색의 조화	울, 가죽, 캐시미어, 면 등의 천연소재 기능성 원단
패턴	베이지, 카키 레드, 그린, 네이비	네이비, 그린, 베이지	블랙, 화이트, 네이비, 레드, 핑크, 옐로우 베이지, 그레이, 올리브	네이비, 카키, 라이트그린, 블루	퍼스펠톤의 레몬 옐로우, 그린	레드, 네이비 셴드, 브라운	화이트, 블랙	머스타드, 오렌지, 레드	키위, 머스타드, 코발트 블루, 네이비, 오렌지, 핑크

Table 6. 피트니스복의 트렌드 분석(1993~002년)

	1993년	1994년	1995년	1996년	1997년	1998년	1999년	2000년-2001년	2002년
주제	스포츠, 내추럴리즘	내추럴리즘	스포츠, 내추럴리즘	스포츠, 에스너	레트로	스포츠	스포티	기능주의	자연스러움
형태 및 특징	박스 스타일 티셔츠, 타이츠	레오타드, 타이츠 사이클 쇼츠 레이어드 착장 슬림한 트레이닝 팬츠	레오타드 오버 사이즈 티 셔츠와 슬림한 팬츠, 애슬레틱 셔츠, 아웃핏	스웨트 슈트 레오타드	사이클 쇼츠 타이트한 티셔츠 재킷, 트레이닝 슈트	타이트한 실루엣 브라형 탑, 사이클 쇼츠 후드달린 스웨트셔츠	브라형의 탑, 사이클 쇼츠 슬림한 티셔츠와 트레이닝팬츠	레오타드 오가복	통이 넓고 허벅선이 낮은 바지 발목 길이 혹은 8부의 카프리 팬츠 슬림한 피팅
장식	추상무늬, 자연 무늬 프린트 지퍼나 절개선을 이용한 장식	추상무늬 반복된 패턴으로 사용 면소재의 저지류	다양한 구성선을 이용한 디자인 인터록 장식 꽃무늬, 기하학적무늬	에스너한 꽃 무늬 코튼 인터록, 나일론 공단 코튼	직선적인 디자인 단순한 배색	곡선적인 디자인 단순하고 심플	직선을 이용한 배색	프린트 사용 줌 액티브한 그레픽, 나선형 모티프 라인을 통한 단순한 배색	단순한 라인 면, 스펀덱스 혼방, 마이크로 폴리스 테리
색상	라이트블루, 핑크 네이비, 퍼플	브라운, 베이지 그레이 체체도의 레드 핑크, 그레이, 네이비	저체도의 네이비, 바이올렛, 라이트 블루, 브라운, 오키, 엘로우	오렌지, 네이비, 블랙, 라이트블루, 엘로우	블랙, 그린, 엘로우	레드, 네이비, 엘로우 차콜그레이, 오키	블랙, 화이트, 엘로우, 오렌지	액티브한 색상 화이트, 블랙, 그레이, 플립, 라일락, 그레이, 톨	파스텔톤, 베이지, 오프 화이트

Table 7. 액티브 스포츠웨어의 1990년대 이후 주요 트렌드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기능주의	클래식				○						△
	스포티	△	△	○	◎	○	◎	◎	○	○	○
	사이버								○		
	레트로										
	기능주의						○	◎	◎	○	◎
표현주의	란제리					○					
	에콜로지	◎	◎	◎							△
	럭셔리										
	에스닉	△	△		○						
	로맨틱					○				△	
	엘레강스										

◎, ◎, ○, △ 순으로 가장 지배적인 트렌트를 표시함.

미로 하는 운동 등에 착용하는 피복류의 총칭으로 경기를 위한 운동복 및 스포티한 캐주얼 의류를 모두 의미하는데 특히 스포츠활동을 위한 의복을 액티브 스포츠웨어라 한다. 스포츠웨어는 소득 수준의 향상 및 여가선용문화의 발달과 부의 과시, 여성해방, 건강과 미에 대한 관심의 고조, 스포츠웨어의 일상화와 대중화, 과학기술의 발달, 미디어의 확대를 통해서 20세기에 많은 변화를 거쳤다.

셋째, 스포츠웨어는 19세기 후반 상류층의 여가 문화에 의하여 발생하였으나 산업사회 이후 스포츠가 일반 대중에게 널리 보급되면서 크게 변화하였다. 20세기초의 비실용적이고 비기능적인 형태에서 시작된 액티브 스포츠웨어는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한 신소재의 개발, 가치관의 변화로 인한 디자인의 발달 등을 통해 현재에 이르러서는 기능성과 함께 미적으로도 높은 가치를 갖게 되어 패션에 큰 영향을 주는 요인이 되었다.

넷째, 수영복, 스키·스노우보드복, 테니스복, 골프복, 피트니스복의 전체적인 트렌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990년대 초반에는 에콜로지나 에스닉과 같은 내추럴리즘이 지배적인 트렌드로서 나타났는데 여기에 스포츠웨어의 액티브한 요소들이 혼합되어 색채, 라인, 프린트 등에서 화려하고 복잡한

형태로 표현되었다. 1990년대 중반 이후의 주요 테마는 레트로로서 1960, 1970년대의 영향을 받아 디자인이 단순화되고, 직선적인 라인, 비비드한 단색의 사용 등으로 스포티한 이미지를 만들어냈다. 이러한 스포티한 이미지는 그 이후로 갈수록 기능주의와 합해져 액티브 스포츠웨어의 근본적인 목적인 기능성에 충실하려는 경향이 나타났다. 2000년대에 들어서는 기능주의적 측면에 1990년대 전반기의 표현주의적 개념이 포함되어 여러 가지 다양한 트렌드가 형성되는 모습을 보였다.

다섯째, 1990년대 이후의 액티브 스포츠웨어의 트렌드의 전반적인 흐름은 일반적인 패션 트렌드 변화 비슷하게 나타났다. 표현주의와 기능주의라는 특성을 고려하여 볼 때 최근의 이러한 현상은 액티브 스포츠웨어와 일반 패션이 상호 간의 트렌드 형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분석되어진다.

여섯째, 최근 스포츠가 여가(leisure) 선용의 목적으로 행해지게 되면서 액티브 스포츠웨어는 점차 캐주얼하게 변화하였고 이것은 스포츠웨어의 일상화와 함께 1990년대 후반부터는 액티브스포츠웨어에서 기능성을 중시하는 측면보다는 심미적인 측면을 강하게 드러내는 표현주의적 트렌드의 경향이 있었다.

또한 수영복, 스키·스노우보드복, 테니스복, 골프

[24] 박신희, op.cit., p.96.

프복, 피트니스복의 트렌드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수영복은 제한된 실루엣에도 불구하고 운동용과 레저용의 두가지로 분류가 되는 특성으로 인해 패션 트렌드 수용에 가장 적극적이었다. 특히 레저용으로 다양한 트렌드를 보여주면서 표현 기법에서도 프린트, 장식, 형태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사용되었다.

둘째, 스키·스노우보드복은 격렬한 동작으로 인해 기능성이 가장 중시되는 스포츠웨어이고 트렌드에서도 기능주의가 가장 강하게 나타났다. 1990년대 전반에 내추럴리즘의 영향으로 화려하고 복잡한 디자인이 유행이었으나 점차 기능성이 강조되면서 디자인은 단순해졌다.

셋째, 테니스복에서의 가장 큰 변화는 색상으로 전통적으로 흰색이나 연한 색상이 주로 사용되던 1990년대 전반기와는 달리 후반으로 가면서 비비드한 색상들이 주된 칼라로 사용되었다. 90년대 중반, 60, 70년대 복고적인 영향으로 미니멀한 디자인으로 변화하였고 이것은 기능주의와 어우러져 계속 유지되었다.

넷째, 골프복은 클래식한 이미지로 인해 형태나 실루엣, 디자인 등에서는 큰 변화가 없었으나 색채에서는 전반적인 액티브 스포츠웨어의 트렌드 경향을 보여주었다. 레저웨어 성격이 강한 골프복은 1990년대 후반에 이르러 캐주얼웨어와 레저웨어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다섯째, 피트니스복은 타이트한 레오타드 형태와 험령한 트레이닝복 형태의 두가지를 기본으로 하여 전반적인 액티브 스포츠웨어의 트렌드를 보여주었다. 특히 2000년대에 들어 요가의 열풍과 편안함의 추구로 좀더 편안하고 캐주얼한 트렌드를 강하게 보였다.

탈 규격화, 시공간적 개념 확대, 장르의 붕괴 등으로 규정지어지고 있는 현대사회는 과거의 획일적인 가치체계가 무너지면서 다원화되었고 인간과 감성이 중시되고 사회로 변화하고 있다. 또한 점점 고도화되는 사회에서 인간은 본능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스포츠 감성을 추구하게 된다. 이러한 변

화 속에서 스포츠웨어가 패션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점점 커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액티브 스포츠웨어의 조형적 특징의 분석과 액티브 스포츠웨어의 트렌드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그동안 그 중요성에 비하여 다소 연구와 관심이 미비했던 액티브 스포츠웨어의 트렌드를 고찰해 봄으로써 액티브 스포츠웨어의 유행 경향과 디자인의 기초 자료를 제시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여겨지나, 더 나아가 액티브 스포츠웨어의 미적 가치와 조형적인 특성, 그리고 소재에 대한 깊은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한다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1. 국내외 문헌

- 곽현미, "스포츠 교육의 미학적 고찰", 울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4.
- 김민자 외, "현대 패션 100년", 교문사, 2002.
- 김문겸, "여가의 사회학: 한국의 레저문화", 서울, 한올아카데미, 1993.
- 박재환, 김문겸, "근대사회의 여가문화",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1997.
- 이남수, "서양 근대스포츠의 도입이 한국체육에 미친 영향", 한국고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1.
- 이영민, "스포츠웨어에 관한 연구 -미국 스포츠웨어의 전통성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3.
- 이정호, "포스트모던 문화읽기", 서울대학교출판부, 1995.
- 임은희, "1990년대 패션에 나타난 하위문화 스타일",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2.
- 정홍숙, "서양복식문화사", 교문사, 1997.
- 최혜선, 박진희, 이경미, 도월희, 김은경, "액티브 스포츠웨어 설계", 수학사, 2001.
- S. Andrew, "The Sportification of Culture, Winning the Design of Sports", London, Laurence King Publishing, 1998.
- P. Baker, "Fashions of a decade the 1940s", B. T. Batsford Ltd., London, 1991.
- P. Baker, "Fashions of a decade the 1950s", B. T. Batsford Ltd., London, 1991.
- V. Carnegie, "Fashions of a decade the 1980s", B. T. Batsford Ltd., London, 1990.
- E. Carter, "The Changing World of Fashion", London, G. P. Putnam's Sons New York, 1977.

M. Costantino, "Fashions of a decade the 1930s", B. T. Batsford Ltd., London, 1991.
 K. Harris, "Vintage Fashions for Women 1920s-1940s", Schiffer Publishing Ltd., 1996.
 J. Herald, "Fashions of a decade the 1920s", B. T. Batsford Ltd., London, 1991.
 J. Herald, "Fashions of a decade the 1970s", B. T. Batsford Ltd., London, 1991.
 D. Jones, "The Golden Fleece, Winning the Design of Sports", Laurence King Publishing, London, 1998.
 C. Lee-Potter, "Sportswear in Vogue since 1910", Thames and Hudson, London, 1984.
 G. Lipovetsky, "L'empire de l'éphémère", 이득재(역), "패션의 제국", 문예출판사, 1999.
 I. Loschek, "Mode in 20", Jabrbundert, 이재원(역), "여성들은 다시 가슴을 높이기 시작했다", 20세기 패션문화사, 한길아트, 2002.
 C. M. Calasibetta, "Fairchild's Dictionary of Fashion", Fairchild Publications, New York, 1998.
 C. Probert, "Swimwear in vogue since 1919", Thames and Hudson, London, 1981.
 R. Thomas, "Histoire du sport", 이규식(역), "스포츠의 역사", 한길사, 2000.

Fashion Forum
 Harper's Bazaar Korea
 Vogue Korea
 골프다이제스트
 스키저널
 썬스
 에어로빅 & 피트니스
 테니스코리아
 텍스타일타임즈
 Beachwear Forecast International
 Elle Italy
 Modasport
 Outdoor Retailer
 Saz Magazine
 Sport & Street Collezioni
 Sport + Mode
 Ski Selection
 Ski Style
 Skiing
 Sportshop
 Sportstyle
 Sportswear International

2. 잡지

Cosmopolitan Korea
 Elle Korea
 Fashoinbiz (섬유저널)

3. 인터넷 자료

두산세계대백과 엔사이버, <http://www.encyber.com/>
 브리태니커, <http://www.britannica.co.kr/>
 웹스터사전, <http://www.webster.com/>
 퍼스트뷰코리아, <http://firstviewkorea.com/>

저자 소개



김민자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대학원 졸업
 미국 오레곤 주립대학 대학원 졸업
 영국 미들섹스미들대학 졸업
 현재, 서울대학교 의류학과 교수
 (151-742) 서울시 관악구 신림9동 산 56-1
 Phone : (02) 880-8753, Fax : (02) 875-8359
 e-mail : mjk6847@snu.ac.kr



엄준희

한양대학교 의류학과 졸업
 Li & Fung (Korea) Mr, 디자이너
 서울대학교 대학원 의류학과
 (복식미학전공)
 현재, 지오다노 상품기획팀 재직